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8
2018

Vol. 279

지난 7월13일 설악산 흘림골 정상에서 바라본 등선대

COVER STORY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 279호

| 발행일 2018년 8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소식

Vol. 279

CONTENTS

희망양양

04 **기획취재** 영화, 서핑이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축제 '그랑블루페스티벌2018'

06 **ISSUE & PEOPLE** 설악 오색가마터

0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지역 시장의 역사

의기양양

10 **뉴스 브리핑**

10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위해 플라이강원 면허 조속히 발급 해야

11 포월농공단지 . 제2그린 농공단지 가동률 높아진다

12 설악산 화채봉 아래 둔전계곡 트래킹코스 개설 추진

13 시내권 아침 통학길 넓힌다

14 현남면-청담동, 수산어촌체험마을-홍천 팔렬중 자매결연

15 **사진으로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6 **의정소식**

16 제8대 양양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최

17 여름해수욕장 점검 및 근무자 격려

오감양양

18 **SNS 기자단 소식** 양양의 7월, 깊은 숲속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9 **이게 최고자니** 여름의 여왕 청정양양의 연(蓮)

20 **맛있는 양양여행** 해변에서 서핑 즐기고 시원하게 땡기는 양양물회

22 **문득, 양양** 산 그리고 바다, 모두 즐길 수 있는 양양으로 가자!

열린양양

24 **책이야기** 검사내전 / 이달의 신간

25 **정보꾸러미** 추천 일자리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28 **공익광고**

양양군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영화, 서핑이 함께하는 한 여름 밤의 축제 '그랑블루 페스티벌 2018'

뜨거운 햇볕, 시원한 물, 짜릿한 영화를 만끽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서퍼들의 천국, 양양 죽도해변 일원에서 뜨거운 햇볕, 시원한 물, 짜릿한 영화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한여름 밤의 축제 '그랑블루 페스티벌 2018'이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영화 '푸른 소금'과 '시월애', '그대 안의 블루' 등을 연출한 이현승 감독이 총지휘를 맡았으며 영화 '기억의 밤', '목숨 건 연애', 'MBC 무한도전-무한상사 편'을 연출한 박준식 PD도 부단장으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영화와 서핑을 사랑하는 다양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페스티벌을 알차게 준비 하였다. "물 즐거움을 품다!"라는 카피처럼 양양의 해변에서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 특별한 감각의 영화 상영, 이벤트 등 지금껏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특별한 축제를 만끽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 관객 그리고 서퍼가 함께하는 축제

해질녘 죽도해변에는 지역주민, 관객 그리고 서퍼들이 함께 오프닝 행사인 '그랑블루 이브'를 통해 특별한 시작을 알렸다. 준비기간 동안 이미 친근해진 운영진과 마을주민의 허물없는 모습과 바다를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설치된 스크린, 어디든 자유롭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객석의 모습은 처음 찾는 관객에게도 안락함과 편안함을 안겨 주었다.

저녁노을이 물든 바닷가 무대에서 펼쳐진 '그랑블루 센셋'은 '난아진과 재즈 프렌즈'의 공연을 시작으로 해변을 수놓기 시작하여 이현승 감독의 영화 '그대안의 블루'의 OST를 부른 가수 김현철이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를 선사해 행사의 분위기가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행사의 백미 '그랑블루 나잇'에서는 전도연, 이천희, 전혜빈, 조광록, 이정재 등 유명배우들이 셀럽으로 방문하여 관객과 함께 영화제를 즐겼다.

또한 '블루웨이브캠페인'을 통해 파란바다, 깨끗한 물, 쾌적한 해변 보호를 위해 청소를 하여 페스티벌 참여자 모두가 물과 바다의 수호천사가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그랑블루 선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양양 죽도해변 일출을 배경으로 요가를 하며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 하였다.

"물 즐거움을 품다!" 서핑을 하면 즐거운 물. 시원하게 마시면 맛있는 물. 보호하면 깨끗한 물.

'서핑의 성지'죽도해변에서 최고 강사진의 고품격 서핑강습과 그랑블루 페스티벌의 영화 및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그랑블루 서프캠프'도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랑블루 초이스 〈비트윈 랜드 앤씨〉 및 아이들과 함께 할 볼 수 있는 〈모아나〉 등 9편의 영화를 해변극장과 마을극장에서 상영하였다. 페이스 페인팅과 의상을 통해 개성을 분출하고 포토제닉한 서퍼를 선발하는 '서퍼스 패션쇼', 바다환경보호를 위한 퍼포먼스 '바다 환경보호 보드 플래시몹', 서핑 후 허기진 서퍼와 늦은 시간까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관람객을 위한 '푸드마켓'등 유쾌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펼쳐져 4일 내내 지루 할 틈 없이 매력적인 '그랑블루 페스티벌2018'을 즐겼다.

주최측에서는 각종 이벤트와 함께 지역 특산품 판매부스를 포함하고 있는 '서퍼스 마켓'을 운영했으며, 인구중앙길 해변마을에 각양 각색의 작가들이 그려놓은 물과 바다 그리고 서핑에 관한 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랑블루 벽화 거리'를 조성, 현남면 복지회관에서 무료영화를 상영하는 등 현지인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미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랑블루 페스티벌2018'은 4일간의 열기를 불태우며 지역주민, 관객, 그리고 서퍼에게 휴식과 여유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물'을 테마로 한 영화, 영상, 서핑, 벽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양양군을 홍보하는 등 조용한 해변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앞으로 그랑블루 페스티벌이 서핑해변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글 · 사진 : 편집부〉

ISSUE & PEOPLE - 설악 오색가마터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곳, 설악 오색가마터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과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3해(동해,서해,남해)의 용왕신에게 매년 음력 2월과 8월, 풍농풍어와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던 풍습이 있었다. 서해의 풍천, 남해의 나주(지금의 영암)와 동해의 양양 동해신묘에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당시 동해신묘 용왕제에 사용하는 제기를 굽던 장소로 추정되고 있는 서면 오색1리에, 이제는 우리의 소원과 희망을 들어줄 도예체험장 '설악 오색 가마터'가 자리하고 있다.

도자기 안에 설악 오색마을의 이야기를 담다

하얀 흙이 많아 백암마을이라 불리던 서면 오색1리 마을에는 동해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기를 굽는 백자 가마터(사기막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면 오색1리(대표 임승엽) 마을은 이런 향토자원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농촌진흥청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오색1리 마을회관 옆에 150.4㎡ 규모의 설악오색가마터를 조성했다.
'도자기 안에 설악 오색마을의 이야기를 담다'라는 컨셉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설악오색 가마터는 오색1리 주민들로 구성된 오색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과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희망과 소원을 담은 나만의 도자기는 굽기과 유약 바르기 과정을 거쳐 집까지 배달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

2017년 7월11일 개소한 설악오색가마터는 평범할 수 있는 농촌마을 체험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공간과 도자기와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하는 두 가지 공간을 조성했다.

도자기 체험 공간에서는 가족이나 단체, 학생들이 도예지도사와 함께 직접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내가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를 완성한 후 맡기고 돌아가면 약 1주일 후에 굽기, 유약 바르기 과정을 거쳐 영롱한 빛의 도자기가 집으로 배달된다.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도자기를 빚으며 나눴던 대화와 교감은 도자기가 택배로 배달되면서 추억으로 되살아난다.

다른 한 켠에는 도자기.농특산물 전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오색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은 가마터 조성 초기에 도자기 교실을 통해 도자기 만들기에 입문했고, 1년여의 수련기간을 거쳐 이젠 수준급이 되었다. 전시장에는 회원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하고 있으며, 산채, 옥수수, 전통장, 허브제품, 감자옹심이, 감식초 등 지역 농특산물 소포장 판매 공간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제작과 생산을 한 회원에게 수익이 직접 돌아가며 회원들은 순번제로 출근해서 운영을 돕고 있다.

올 여름 양양의 시원한 바다와 계곡, 숲과 함께 설악 오색가마터에서 나 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본다면 두고두고 의미있는 추억이 될 듯 하다.

〈글 · 사진 : 편집부〉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나의 소원을 들어줄 도자기 만들기
- 신청대상 : 학생, 개인 및 단체
- 적용수업 :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수업
- 체험시간 : 1시간 정도
- 체 험 비 : 1인당 2만원

* 인원수 및 수업시간에 따라 조정

양양지역 시장의 역사

양양시장 신축(1960년대)

시장(市場)이란 어떤 곳인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장터는 우리들의 삶과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로 존재하여 왔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일반적 지식으로 시장(市場)은 생산자 소비자 및 상인 등이 모여 물자의 교환매매를 하는 일정한 장소를 장시(場市) · 장(場) · 장문(場門) 또는 시장(市場) · 시상(市上)으로도 불렀다. 이에 대하여 상설의 상점은 시전(市廛) · 시사(市肆) · 전방(廛房) · 전포(廛鋪) 또는 단순히 전(廛)이라 하였다.『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 5의 각 전조(各廛條)에는 "행상이 모여서 교역하고는 물러가는 것을 장(場)이라고 이른다."라 하였다.

양양지역 시장의 유래

양양지역의 시장(市場)에 대한 효시(嚆矢)는 지금으로부터 24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영조 46년(1770)에 홍봉한(洪鳳漢) 등이 왕명으로 한국의 문물제도를 분류 · 정리하여 편찬한『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후반 양양지역에는 다섯 곳, 일제강점기의 기록에 세 곳에 개시(開市)되어 모두 여덟 곳에서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 양양시장

■ 조선시대 시장-5개소

양양읍내시장(襄陽邑內市場)은 양양읍 남문리에 소재하며 매월 4, 9일(월6회)개시하였고, 물치시장(沕淄市場)은 강현면 물치리에 소재하며, 매월 5, 10일(월6회) 개시하였다. 동산시장(洞山市場)은 현남면 시변리에 소재하며 매월4, 9일(월6회) 개시, 1909년부터 매월 5, 10일(월6회) 개시되었다. 부동시장(府東市場)은 손양면 수여리에 소재, 매월 3, 8일(월6회) 개시. 상운시장(祥雲市場)은 손양면 상운리 소재. 매월 5, 10일(월6회) 개시하였다.

양양우시장(1960년대).

■ 일제시대 시장-3개소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 의하면 기사문시장(其士門市場)은 현북면 기사문리에 소재하며, 1917년 매월 5, 10일(월6회)개시하였다. 경성상공회의소의 자료에 인구시장(仁邱市場)은 현남면 인구리에 소재하며 1937년부터 매월 5, 10일(월6회) 개시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 외 서면 서림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대영(87세 남)씨의 증언에 의하면 "서림시장(소규모 장터)은1936년경부터 장거리에 상점들이 10여 집 들어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난장형식으로 운영되었다."고 말했다.

옛 인구시장

민족의 얼이 서린 양양장터에 새바람이 불다.

양양장터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4월 4일 수천 명의 시위군중이 운집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전개해 강원도에서는 가장치열한 곳으로,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중적 항일운동을 전개한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양양의 우시장은 강원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축산농가의 감소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6 · 25전쟁 이후 판잣집을 건축 시장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물의 노후로 이를 철거하고 주민자력으로 신축 상가가 들어선 이후 2003년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기존의 점포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한동안 우천 시 마다 질척했던 장거리가 아케이드 설치로 불편이 해소되었고, 그 외 주차장 추가확장 및 외곽도로 연결 사업 등 시장인프라사업들이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침체된 시장경제도 새 활로를 찾기 위해 다변화를 모색 중이다. 최근에는 전국 최고 전통명품시장을 만들기 위해 양양시장 인근에 주민 복지와 경제 선순환(善循環)의 거점공간이 될 웰컴센터를 금년 하반기 완공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위해 플라이강원 면허 조속히 발급 해야

7월 23일 양양국제공항모기지항공사유치대책위원회 등 주민 6백여명 청와대 인근 시위
국토부 차관 면담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신청서류 심사 9~10월 중 결론 낼 것"

지난 7월 23일 우리군 주민들이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촉구하는 대규모 원정시위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개최했다.

우리군 주민을 비롯해 플라이강원유치대책위원회(위원장:정준화), 속초 · 고성 · 양양 · 인제 등 설악권 4개 지역 번영회장 및 주민 등 600여명은 이날 새벽 버스 20여대에 나눠 타고 '국토균형발전'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국토부의 항공운송면허발급 지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양수 국회의원과 김진하 양양군수, 고제철 양양군의회 의장, 김정중 도의원, 정준화 위원장 등은 청와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을 면담한 데 이어 국회를 방문, 김정렬 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은 "국토부가 염려하는 플라이강원 초기안정화 및 재무안정성 문제는 이미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강원도도 일정 지분 참여해 경영안정화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플라이강원 면허발급 촉구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2년 정부의 주도 아래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을 목표로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을 우리 강원도와 양양군 등은 운항장려금을 쏟아 부으면서 양양국제공항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관광관문공항으로서 활성화 되도록 묵묵히 뒷받침해오고 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하늘 길을 여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양국제공항을 확실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지역항공사 설립만이 양양국제공항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조속히 플라이 강원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및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9월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만큼 플라이강원의 신청서류를 면밀히 심사해 10월중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 등에 강원도나 양양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033-670-2721

포월농공단지 · 제2그린 농공단지 가동률 높아진다

제2그린농공단지 16개중 15개 분양, 1개는 수도권 음료업체 입주 예정

포월(제1)농공단지와 제2그린 농공단지가 최근 공장 준공이 증가하고 노후 기반시설이 정비되는 등 가동률 증가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2015년 5월, 94억원을 투입해 10만 3,300㎡의 부지에 16개 필지 60,774㎡에 조성된 제2그린 농공단지는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식.음료품, 목재, 비금속 광물 제품 등으로 입주업체를 한정해 분양중에 있다.

올 상반기에 서광농협, 시원안전산업, (주)재성정보통신, (주)하이테크이엔지 등 4개 업체가 공장신축을 완료함에 따라 제2그린 농공단지에 가동되는 업체는 모두 9곳으로서 가동률이 크게 증가했다.

현재 공장이 미 설립된 양양오색한과 등 5개 업체도 올해 안에 공장 신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내년부터는 풀 가동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3월과 5월에 두유, 펫음료 제조업체인 (주)스마트푸드와 군고구마 말랭이 등 제조업체인 (주)매홍엘앤에프 등 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마쳐 현재 16개 필지 중 15필지가 분양된 상태다.

미분양된 1개 필지도, 현재 수도권의 중견 식음료 업체가 입주의사를 개진하고 있어 올해 안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농공단지 3억 8천만원 투입, 노후 시설 개선 완료
군청 민원실 기업제품 홍보관 설치, 7번국도 진출입 신호등 설치 예정

지난 1994년, 68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제1(포월)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노후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홍보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3억 7천만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단지 내 아스콘과 보도블럭, 가로등을 전면 교체하고 진입로 입구에 담장벽화와 통합 안내간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으며, 단지내 노동자 등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쉼터와 운동기구를 설치했다.

현재 제1농공단지에는 현재 농수산, 음식료, 비금속 철강 등 4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양양군은 제2그린농공단지의 분양률이 높아지고 제1농공단지의 시설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2개 농공단지의 2017년말 기준 490억원의 매출을 올해 520억원까지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 신호등이 없어 출퇴근 불편과 제품 이송에 어려움이 있던 7번 국도에서 농공단지 진출입부에, 올해 안에 신호등을 설치해 기업 애로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 교통 신호등 설치 건은 지난 5월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다.

또한 지난 5월, 8백만원을 들여 군청 민원실에 설치한 농공단지 및 관내 기업 생산 제품 홍보 전시대를 올해 낙산 곤충생태관과 문화복지회관 등에 추가 설치해 홍보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기업지원담당 033-670-2124

둔전계곡 전경사진, 중앙에 설악저수지와 오른쪽에 진전사가 보인다

설악산 화채봉 아래 둔전계곡 트래킹코스 개설 추진

진전사~설악저수지 일대 순환 4㎞ 구간, 1시간 30분 정도 소요

우리군이 최근 둔전계곡 탐방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둔전계곡 입구에 있는 진전사에서 출발해 설악저수지 일대를 순환하는 둔전계곡 트래킹코스를 개설하기로 했다.

당초 우리군은 둔전계곡 입구에서 설악산 관모봉에 이르는 4㎞ 구간과 대청봉 아래 아홉살골까지 4.5㎞ 구간 등 2개 코스에 왕복 약 16㎞에 이르는 탐방로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용역을 통해 코스별로 세부적으로 탐사한 결과,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관모봉과 아홉살골까지 탐방로를 개설할 시, 산세가 험준하고 코스가 길어 개설에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인허가 등 협의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진전사에서 출발해 설악저수지 일대를 순환하는 4㎞ 순환 트래킹코스를 우선 개설하기로 했다.

군은 '진전사~설악저수지~500고지등산로~둔전리마을'까지 이르는 1코스와 '진전사~설악저수지 순환~둔전리마을'에 이르는 2코스 등 2개 코스를 재탐사하여 8월중 환경훼손이 적고, 안전성과 경관성이 높은 코스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탐방로 내에 출렁다리, 목교, 데크로드, 안전펜스, 종합안내판, 쉼 의자, 방향 표지판, 주차장 등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안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구간은 선종불교의 발상지인 진전사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넓은 저수지를 끼고 시원한 계곡 물줄기를 따라 수려한 숲길을 감상할 수 있어 새로운 트래킹코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군은 선종 불교의 발상지로 잘 알려져 있는 진전사 불교성지 복원사업이 함께 추진 중임에 따라, 둔전계곡 탐방로를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자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033-670-2721

승하차 공간 확보와 사고 예방 위해 시내권 통학길 넓힌다

농협중앙회~양양초교~로얄아파트, 1.4㎞ 구간 도로폭 2m 넓혀
노후화된 구(舊)의용소방대 건물은 철거 후 녹색쌈지공원 조성

우리군이 통학 및 출퇴근 시간에 상습적으로 정체를 빚는 시내구간에 대한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양양초등학교와 아파트, 주택 등이 밀집해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를 빚는 구간인 농협중앙회~양양초교~로얄아파트 구간 왕복 1.4㎞에 대한 도로·인도 정비공사와 생활 쌈지공원 조성공사를 착공,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차선 도로(편도 3m)가 매우 협소하고, 임시 정차 공간이 없어 교통정체를 유발함에 따라 양쪽 인도를 조정해 1개 차로의 폭을 5m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화되어 파손·훼손된 곳이 많은 인도도 함께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 구간 인도 위에 전주 8개가 위치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통신선으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전선 지중화사업을 병행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되고 활용도가 낮은 구(舊)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하고 인근 군유지를 포함한 660㎡에 어린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쌈지 공원을 조성한다.

잔디, 소나무, 회양목 등 녹색 수종을 식재하고, 벤치와 운동시설, 파고라 등을 설치해 인근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공간은 사각블록으로 포장해 친환경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도시개발담당 033-670-2760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군민 대상으로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8월 31일까지 접수

우리군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와 재정자치 구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군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업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모두 5억원으로 사업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체재원(군비)으로 추진 가능한 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다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이나, 행사 · 축제 ·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보조금 성격의 사업, 특정인·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외하기로 했다.

접수기간은 이달 9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제안서를 작성해 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해 적법성, 중복투자 여부, 시행가능성 등을 사업부서에 의뢰해 사전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5억원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033-670-2108

야외활동 시 '살인 진드기' 주의하세요

전용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으므로 물리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최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환자 1명 발생

전국 곳곳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7월25일 우리군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SFTS는 전용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농작업, 등산,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혹시 물린 후에는 14일 이내에 발열, 구토, 설사 중 한 가지라도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예방수칙으로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옷, 긴 바지, 모자, 목수건, 장갑 등을 착용하여 피부노출을 최소화 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야외활동 후 활동했던 옷은 즉시 세탁하고, 샤워를 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FTS는 별다른 예방접종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과 가을 산행, 산이나 들판에서 나물이나 열매 등 채집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033-670-2548

양양 현남면-서울 청담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수산어촌체험마을, 홍천 팔렬중과 1교1촌 자매결연

현남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민)는 7월 5일 현남면사무소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역의 친선도모와 문화 · 관광 · 예술 등 상호교류 활성화로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협약식에는 청담동 김성국 주민자치위원장과 신호진 청담동장, 이종민 현남면 주민자치위원장, 전성호 현남면장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현남면과 청담동은 향후 문화 · 예술 · 체육 · 농업 · 복지 ·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조를 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 및 민간단체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산어촌체험마을(어촌계장 권영환)이 홍천 팔렬중학교(교장 우옥분)와 1교1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어촌 체험 및 생태 학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어촌과 수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천 팔렬중학교 학생 및 교사 75명은 18일 오전 수산항을 방문해 전문 바다해설사가 진행하는 생태교육을 청취한 후, 투명카누와 문어빵만들기 등 수산어촌체험마을의 대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팔렬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윈드오케스트라가 수산항 요트마리나를 배경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음악회를 진행한다. 수산어촌체험마을 관계자와 팔렬중학교 교직원들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하며 어촌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어업관과 어촌관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죽도·인구 해변에서 열린 서핑보드 교환 플리마켓 보드스왑(Board Swap)(7. 6)
2. 현남면 농업경영인회(회장 김부기) 암투병 중인 회원 일손돕기(7. 9)
3. 물치비치마켓 '꿈꾸는 바다' 여름 이벤트, 패션쇼(7.14)
4. 사단법인 오래포럼(이사장 함승희) 지역주민 의료 및 법률 봉사(7. 14)
5. 관광두레사업 강원권 주민공동체 대명쏠비치 리조트에서 로맨티코 마켓 열어(7. 22)
6. 일본 롯카쇼촌 고등학생 교류단 양양군 방문 및 문화탐방(7. 23)
7.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세요~지구촌 사랑나눔 캠페인(7. 24)

제8대 양양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은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간 제2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2018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고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군민의 삶을 우선하는 현장중심의 의회, 견제와 협력이 조화된 균형 있는 의회,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전 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밝혔으며, 소통.화합.믿음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군민만 바라보고 정도를 지향하면서 더욱 더 열정을 갖고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각 부서별로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진행상황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주요 업무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질의와 대안 및 의견제시 등을 통해 2018년 하반기 내실있고 책임있는 행정 추진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제철 의장은 이월사업 관련 현재 양양군의 이월사업이 많음을 지적하며,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발굴하여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방도로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 단속 등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귀선 부의장은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에서 양양의 송이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성 버섯 생산량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반가움을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 송이재배에 앞장 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우섭 의원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올 9월 우리 양양에서 개최되는데 집행부와 군민전체가 합심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숙박.음식점 등을 양양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택철 의원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와 관련 아직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하였으며, 주말에 쓰레기 수거가 안되는데도 도로변에 쓰레기를 놓아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8 해수욕장 용왕제 봉행

7월 6일 양양군의회 고제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018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용왕제에 참석하여 태평성대와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사고없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이 운영되기를 기원하였다.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올 해에는 단 한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각 지역에서 열리는 용왕제에 참석하였다.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해수욕장 점검 및 근무자 격려

지난 7월 20일 양양군의회 고제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낙산해수욕장 등 관내 주요 해수욕장을 점검하였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우리 관내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와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여름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피서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상안전요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에는 익명으로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정례회 등 회기가 실시되면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를 통해 실시간 IP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니 많이 청취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Tel.033-670-2801

SNS기자가 알리는 양양 소식

양양의 7월 깊은 숲속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글·사진 : SNS 홍보기자단 전영권

긴꼬리딱새(삼광조)는 흔하지 않는 여름철새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주로 남부지역에서 관찰되며,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드문 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5월~7월에 소리를 들었지만 잡목이 우거진 어두운 숲속을 조용히 다니는 습성이 있어 발견이 쉽지 않고, 포란 중인 둥지를 발견한다고 해도 까마귀, 어치 등의 습격을 받아 번식에 성공할 확률이 낮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 이름인 삼광조로 불렸으나, 수컷의 꼬리가 암컷보다 3배 이상 긴 특징을 반영해 긴꼬리딱새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눈테와 부리가 푸르며 정수리에 작은 댕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컷의 꼬리가 긴 이유는 암컷이 긴 꼬리를 갖은 수컷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꼬리가 너무 길면 포식자에게 쉽게 노출되거나 이동하기 쉽지 않아 현재의 수컷 꼬리길이는 암컷의 선택을 잘 받으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길이로 진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긴꼬리딱새는 성선택(Sexual Selection)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새입니다.
먹이는 주로 숲속의 작은 곤충으로 암수 번갈아 가며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습니다.
숲속에 장맛비가 내리고 빗줄기가 굵어지면 암컷은 날개를 펴서 둥지를 덮어 아가들을 보호하는데, 이 모습에서 깊은 모정이 느껴집니다.내년에도 긴 꼬리가 매력적인 긴꼬리딱새를 만나면 좋을 텐데 쉽지가 않겠지요.

〈참고 자료〉 : 긴 꼬리가 매력적인 새 (한국의 멸종 위기 야생생물,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촬영정보제공〉 : 한국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협회 양양지회장 황하국

더 많은 소식은 양양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ikeyyang 와 양양군 공식 페이스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에서 만나 볼 수 있답니다.

여름의 여왕 청정양양의 연(蓮)을 만나다.

매년 7~8월 꽃을 피우는 여름 식물 연은 가을에서 겨울까지 수확하는 연근을 제외하고 연꽃 연잎 등은 6월에서 9월 복격적으로 수확을 한다. 양양의 농가에서도 한창 수확중인 연은 부위별 효능과 복용방법이 다양하다.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이 없어요.

연잎은 많은 양의 철분이 들어 있어 예로부터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은 연잎을 차로 달여서 수시로 복용했다고 한다. 연잎의 은은한 향은 심신안정에 도움이 된다. 황산화물질이 풍부하여 노화를 막아 주고, 혈압을 내려주며 붓기를 가라 앉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연꽃은 진정, 지혈 작용을 하며,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연꽃을 찧어 붙이면 피가 금방 멎고, 한의학에서는 자궁출혈이나 코피 등이 있을 때 약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연근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중 알코올 분해 효소를 활성화 시키는 '아스파르트산'이 높아 숙취해소에 좋다고 한다.

연꽃처럼 은은한 '연잎 밥', 눈으로 한 번 향으로 또 한 번 '연꽃 차'

웰빙 열풍이 불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연은 잎을 슬라이스하여 말린 후 우려먹는 연잎차, 냉동한 생연꽃을 넓은 수반이나 옹기 등에 넣고 끓는 물을 부워 우려먹는 연꽃차로 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연근차의 경우 3~4번 우려먹을 수 있어 식수처럼 먹기에도 좋다. 차를 우려낸 후 남은 연근은 밥을 지을 때, 된장찌개 등에 넣어 먹을 수도 있다.
또한 수육 등 고기 음식을 할 때 생연잎으로 쌓아서 쪄내면 비린내와 누린맛없이 깔끔하고 담백한 수육을 만들 수 있다..
연잎에 영양가득 잡곡 및 재료들과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만든 연잎밥은 연꽃처럼 은은한 향으로 맛도 좋고 건강까지 챙기는 음식이다. 연잎으로 밥을 하면 수분을 촉촉이 머금은 순하고 부드러운 밥맛을 즐길 수 있다.

청정양양의 연잎, 연꽃 100% 즐기기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양양지역에 자리하여 좋은 토양에 무농약으로 재배되는 연꽃과 연잎은 한창 수확되는 바로 이시기에 구입하여 차를 우리고 음식을 해 먹기에 제격이다. 구입 후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연의 향을 느낄 수도 있다. 무농약으로 재배한 자연그대로의 연을 정성껏 말려 만든 연잎차, 연근차를 구입는 것도 1년 내내 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여름의 여왕 연으로 무더운 여름을 향긋하고 건강하게 지내보자.

Tip

· 연잎구매 : 양양몰 www.yangyangmall.co.kr (문의 : 033-670-2704)
· 연잎보관법 : ① 생 연잎을 씻어 물기를 닦는다. ② 연잎을 반으로 접은 후 다시 양옆을 접는다.
③ 접은 연잎을 하나씩 지퍼백 및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면 1년 내내 언제든지 생 연잎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여름 무더위, 서핑으로 날리고 물회로 식힌다

이번 호부터 양양의 대표적인 맛과 음식을 여행, 스토리와 함께 소개할 '맛있는 양양여행' 코너를 싣습니다.
강원도 외식저널 대표이자 음식 칼럼니스트인 황영철과 함께하는 '맛있는 양양여행'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자미 세꼬시 물회

잡어 물회

전복 물회

째복 물회

다산 정약용의 탁족(濯足)놀이 하듯
"해변에서 서핑 즐겨고 시원하게 땡기는 양양물회 어때요"

옛 탁족 놀이에 비유되는 양양해변의 서핑

몹시 무더운 날, 덥고 좁은 방에만 가만히 있는 정조대왕에게 한 신하가 시원한 곳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조는 "더위를 피해 자꾸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거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더 시원한 곳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만족할 곳이 어디 있겠는가" 라며 거절을 한다. 사뭇 천하에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로지 백성뿐이라는 임금다운 처신이라 할 만 한데, 이에 반해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산 정약용이 소서팔사(消暑八事)라 하여 추천하는 여덟 가지 피서법으로 저마다 여름을 났다.
비록 유교적 규율에 따라 의관을 다해 갖추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탓에 지금 같은 신체 노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겨우 발목까지 걷고 달 밝은 밤에 발을 씻으며 "절벽 밑 푸른 숲에서 저녁 해를 보내니 / 능파선 버선발이 달 아래 서늘하네 / 백 번 건넌 강물이 맑아 발 씻을 만 하네,…"라며 시를 읊던 탁족(濯足)놀이가 이중에 하나이다. 참으로 산수풍경이 절로 상상되는 자연 순응적인 여름나기가 아닐 수 없다. 복달임 음식으로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더위를 다스렸는데, 펄펄 끓는 개장국, 소고기 장국, 삼계탕 등을 비롯 탕이나 국, 면류로 여름 열기의 입맛을 다스렸다. 방법은 달라도 지금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당시의 여름나기이다. 문득 달밤의 산수풍경 아래 선비들 탁족(濯足)놀이의 시원한 운치 못지않게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양양해변의 탁족놀이가 요즘 인기이다. 바로 파도의 등허리를 타고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밀려 오가는 젊은 서퍼들의 역동적인 몸짓만 보더라도 바람이 살랑대는 대청마루에 누워 낮잠을 즐기는 정도로 청량감이 드는 서핑이다. 굼실거리는 파도가 거품처럼 깨질 때를 기다리며 푸른 바다에 둥둥하게 떠 있던 서퍼들의 힘찬 패들링과 파도를 타는 라인업의 상상만으로도 죽도해변의 여름은 오히려 즐거운 곳이다.

굳이 자연산 양식산을 따지지 않아도 좋을 양양 물회의 옳은 선택

양양해변에서 시원한 바다로 더위를 다스렸다면 음식 또한, 여름에 대적할 이한치한(以寒治寒)의 응당 시원한 국물음식이라야 할 것이다.
한 그릇의 풍미에는 오미(五味)가 있는데, 시원하고, 매콤하고, 새콤하면서 단맛이 나고, 육질의 쫄깃함이 붉은 색과 합(合)이룬 양양의 물회가 곧 차가운 것으로 다스려야 할 여름 대표 복달임음식이 될 만 하다. 양양의 물회는 농염하게 시각적인 속초 물회와 달리 소탈한 편으로,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여러 가지 횟감을 지나치게 혼합하지 않으며, 주종 횟감에 웃기로 몇 점 올린 횟감이 들러리를 하는 물회 메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미물회, 째복물회, 잡어물회, 도다리물회, 광어물회 같은 특정 메뉴만 보더라도 이를 반증한다.
또한 물회 맛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하여 차별을 굳이 두지 않기도 하는데, 자연산 횟감을 쓰는 값비싼 자연산물회이든, 양식 횟감을 쓰는 다소 저렴한 일반물회 이든 이를 개의치 않는다면, 굳이 횟감의 차이를 가려내 먹지 않는 것이 양양 물회를 선택하는 옳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물치항, 낙산항, 수산항, 기사문항, 남애항 등 마다 새콤매콤 시원하게 차고 넘치는 물회 맛으로 풍성한 양양의 여름바다이다. 미각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 취향에 따른 것이니 자연산 횟감의 물회가 무조건 옳다는 편견을 버린다면 양양의 물회는 탁족을 즐기고 난 후에, 더 없이 여름나기를 즐겁게 해주는 양양의 대표 여름음식으로 여길 만할 것이다.

<글 · 사진 :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황영철>

산 그리고 바다, 모두 즐길 수 있는 양양으로 가자!

8월 뜨거운 여름. '심심해'를 입에 달고 사는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 더위에 지쳐 힘들어하는 남편, 우리게는 힐링이 필요하다. 친구들과 여행계획을 세운다. 총 3가족 14명의 마음을 모아본다. '깊은 산 계곡에서 힐링하고 싶다는 남편들, '바다!바다!'를 외치는 아이들, 이번 여행의 목표는 6명의 아이들과 8명의 어른이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여행이다. 그래 양양으로 떠나자. 산 그리고 바다, 모두 신나게 즐겨보자~!

재미와 체험이 가득한 바다여행, 수산어촌체험마을

이른 아침 출발이지만 아이들은 떠나는 내내 '조잘조잘' 들떠있다. 수산어촌체험마을에 도착하자 가득히 정박해 있는 요트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이들은 투명카누를 보면서 어서 타자고 졸라댄다. 요트승선은 다음을 기약하며 투명카누에 오른다. '우와~!" 투명카누 아래로 푸른 바닷속이 한눈에 들어온다. 펀보트를 탄 아이들은 서로 물을 뿌려대며 신이난다. 그리고 바다로 입수! 요즘 핫 하다는 스노쿨링체험을 즐긴다. 아이들은 바다위를 둥둥 떠다니며 바다탐험에 신이난다. 시원하게 물놀이 한바탕이 벌이지고는 예약해놓은 문어빵만들기 체험을 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문어빵을 만드는 아빠와 아이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슬슬 구워지는 문어빵 냄새에 군침이 돈다. 호호 불어가며 문어빵을 입에 넣는 순간 엄지를 척 들어 보인다. 문어빵으로 식욕이 오른 우리는 물회와 전복죽을 뚝딱 비워낸다. 나오는 길 수산어촌체험마을 주변에 있는 오산리선사유적 박물관도 들려본다.

깊은 산 계곡 힐링여행, 미천골자연휴양림

양양5일장에 들려 두손 가득 장을 본 후 드디어 오늘의 숙소 미천골자연휴양림에 도착한다. 가성비가 높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서 사전예약은 필수이다. 아빠를 따라 아이들은 캠핑 장비를 옮기며 신나게 텐트를 설치한다. 어느 샌가 시원한 계곡을 본 아이들은 텐트가 완성되기도 전에 수영복을 입고 튜브를 끼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엄마들이 뒷정리를 하는 동안 이미 계곡에 입수한 아빠와 아이들. 엄마들은 우거진 송림 아래 의자를 펴고 여유를 즐긴다.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와 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게 바로 휴가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저녁은 시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구워 물치항에서 떠온 회와 함께 먹는다. 거기에 입가심으로 매운탕까지 배불리 먹으니 아침부터 신나게 움직인 아이들은 금세 코를 골며 잠이 든다.
어른들은 수백만개의 별을 보며 미천골의 깊은 밤을 즐긴다. 8월의 무더위는 미천골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인 듯 하다. 다음날 이른 아침 미천골 자연휴양림 산책에 나선다. 5Km구간의 미천골정과 상직폭포, 멍에정등의 아름다운 산책로를 지나 불바리기 약수터에 다녀왔다. 오전은 미리 신청해 놓은 숲해설을 들으며 아이들과 천년의 역사를 품은 선림원지도 돌아본다.
떠나는 길, 아쉬움을 달래며 송천떡마을에 앉아 시원한 식혜와 떡을 먹는다. 쫄깃 쫄깃 떡을 나눠 먹으며 미천골의 가을을 즐기기 위해 올해가 가기 전 다시 한번 이곳 미천골에 모이기로 다짐한다.

<글 · 사진 : 편집부>

■ 수산어촌체험마을

위치: 양양군 손양면 수산1길 20-16 수산어촌체험마을
인터넷예약 : https://www.seantour.com
문의: 수산어촌체험마을 033-673-3677

■ 미천골자연휴양림

위치 :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15
운영시간 : 9시~18시(매주화요일 휴무, 성수기제외)
예약문의 :033-673-1806
http://www.huyang.go.kr(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명	체험요금	이용시간
투명카누체험	2인승 20,000원 4인승 30,000원	30분
펀보트(전동)	2인승 20,000원	30분
선상낚시체험	30,000원(5인이상)	2시간
요트승선체험	30,000원(5인이상)	1시간
스노클링체험	10,000원	1시간
문어빵만들기	1판 14,000원	30분
해초비누만들기	개당 5,000원	30분

책 이야기

"생활형 검사의 사람공부, 세상 공부."

검사내전 / 김웅 지음 /
부키 / 2018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한 검사가 자신의 직장생활을 소재로 쓴 수필입니다. 형사부 검사로서 오랜 세월을 보내온 작가는, 책을 통해 그가 만났던 사건들 그리고 그 속의 피의자, 피해자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어떤 사연들은 그 정도 수준의 재범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어떤 사연들은 사회적으로 도움받기 힘든 피해자의 현실을 들려주며 눈물이 나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에서 본인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접하기 힘든 검사들의 직장 분위기도 엿볼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에는 법조계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느낀 법의 본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나열하며 끝마칩니다. 저자는 사건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을 만나며, 범죄 자체가 내뿜는 악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이 가진 욕망과 그로 인해 드리워진 삶의 그림자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검사실에서 마주하는 인생의 파열들이 직선적이고 단편적일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들여다볼수록 다양하고 모순적이기에, 세상의 일들을 직선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이야기의 뒷면과 진짜 사연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약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법, 그리고 두렵고 원시적인 존엄함에 대한 생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책 속 밑줄 긋기

『 흔히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한다. 이는 처벌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처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고기는 성인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삼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고 싶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감동적으로 행복하게 해결했다고 믿고 싶고, 보기 싫은 진실이나 현실은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그 판사의 포옹이 만약 가해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그건 아마 무섭고 힘든 수감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포옹이라는 작은 호의로 갱생시켰다고 착각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신 수레를 끄는 당나귀와 같은 생각이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p. 84)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천종호 지음, 우리학교, 2013
- 판사유감
  문유석 지음, 21세기북스, 2014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외 지음, 로고폴리스, 2016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 지음/ 을유문화사 / 2018

우리가 차를 선택할 때 외관 디자인이나 브랜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 자동차를 누구와 함께 타고 어디에 가느냐이듯이, 우리가 사는 곳도 마찬가지로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냐가 아닌 어떤 공간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서로의 색깔을 나눌 수 있는 곳,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 도시로의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떤 공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미세먼지 해결사 슈퍼 피시

오리안 랄망 지음 / 씨드북 / 2018

이 책의 주인공은 빛나는 상상력으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실현하며 공기도 마음도 정화해 줍니다. 하지만 이 책이 단순히 비현실적인 영웅 판타지를 다룬 것만은 아닙니다. 도로 한복판에 나온 슈퍼피시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도시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닮았습니다. 책 속 깨끗하고 순수한 주인공과 검은 도시로 뛰어든 슈퍼피시의 이야기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결국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농업회사법인 (주)설악산그린푸드	4명	생산직	09:00~18:00 (주5일)	시급7,530원
하조대막국수	3명	홀서빙 및 주방보조원	09:00~20:00 (시간협의)	협의
라파미예	1명	객실청소원	09:00~18:00	협의
㈜남애기전	1명	총무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57만원이상
㈜서경건설	2명	토목시공기술자	09:00~18:00 (주5일)	월350만원이상
새한자동차공업사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토:13시까지	월158만원이상
	2명	자동차검사원 자동차정비기사	09:00~18:00 토:13시까지	월200만원이상
㈜한샘개발 낙산비치호텔	1명	객실청소원	09:00~18:00 (격주5일)	월197만원
㈜오션벨리	1명	프론트사무원	교대근무	월220만원이상
선영유통	1명	매장물품정리원	09:00~18:00	월160만원
㈜새서울레저 골든비치리조트	1명	수질환경기사	08:00~18:00 (협의)	월200만원이상
	1명	건물유지보수원	08:00~18:00 (협의)	월180만원이상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연어원	5명	포장및세척	주5일 09:00~18:00	월 157만원 이상
현산소규모요양시설	4명	요양보호사 (시설근무)	주5일 교대근무	월 178만원 이상
㈜골든에스엔씨	4명	룸메이드	주6일 근무	상담후 (일바가능)
패밀리펜션	1명	여름성수기 청소원	주5일(1개월)	일급 65,000
㈜설악산그린푸드	0명	생산직아르바이트 (중식제공,4대보험)	9월말까지 근무 (09:00~18:00)	시급7,530
양양국제공항호텔	0명	룸메이드	09:00~17:00(주5일)	월180만원
무지개상사 (근무처:속초양양축협)	1명	물품진열원	1일4시간(협의) 격주토요일8시간근무	월80만원
㈜휘찬	1명	매장계산원	월8회 휴무(2교대) 06:00~15:00 / 13:00~22:00	연봉1,970만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8년 7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매년 8월 1일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세 율
개 인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	50,000원
법 인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500,000원

□ 납 기 : '18. 8. 16 ~ 8. 31

□ 납부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지방세 수납 시스템,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나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군청 세무민원실 및 읍 ·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부과) ☎033-670-2786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량기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8. 8. 27 ~ 8. 30(4일간)

□ 읍·면별 검사 일정 및 장소

읍 · 면	검사 일정	장 소	읍 · 면	검사 일정	장 소
현남면	8.27(월)/오전	현남면사무소	현북면	8.27(월)/오후	현북면사무소
손양면	8.28(화)/오전	손양면사무소	강현면	8.28(화)/오후	강현면사무소
서면	8.29(수)/오전	서면사무소	양양읍	8.29(수)오후 ~8.30(목)	양양읍사무소

※ 오전 : 09:30 ~ 12:30, 오후 : 13:30~17:30

□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t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t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 문의처 : 양양군청 경제도시과 (☎033-670-2219)

여름(장마)철 안전한 전기사용 요령

- 집안으로 빗물 등이 유입되어 차단기나 스위치가 침수되었거나, 젖 어 있는 경우 절대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이상 적색 시험버튼을 눌러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지 확인합니다.
- 집안이 침수될 조짐이 있는 경우 제일 먼저 전원스위치를 내린 다음 대피하시고 물이 빠진 후에는 건조시킨 후 우리 공사에 점검을 의뢰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않는 양수펌프(배수용 제외)의 전원스위치를 내려 놓으므로서 펌프 모타나 전선 침수에 따른 감전 사고를 예방 합니다.
- 침수된 전기 기계 기구(펌프모타, 용접기, 기타)는 재 사용 전에 반드시 누전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용토록 합니다.
- 번개가 치면 철근, 장대와 같은 물체를 들고 야외나, 농로를 다니는 것은 절대 피하도록 합니다.
- 세찬 비바람에 의하여 전선이 끊어진 경우 절대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 신고를 합니다. (국번없이 123번)
- 전기안전 점검 문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번호 없이1588-7500번)로 연락합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선도지구) 양양전통시장 5일장 환경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소음, 간접흡연, 날씨 등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할머니 난전상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양양전통시장와 중심가로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 공모분야

· 양양전통시장 5일장 할머니 난전상인 근무환경 개선 아이디어

· 양양전통시장 경관개선 아이디어(양양전통시장 포함 인근 중심가로환경)

□ 공모자격

· 전통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개인 또는 팀(5명 이하)으로 응모 가능

□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18.7.2.(월) ~ 8.31.(금) 16:00 까지

· 결과발표 : 2018.9.14.(금)

□ 문의 : 02-6357-8014(지역활성화센터_김초롱 연구원)

양양군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

□ 기 간 : '18.9.3.(월) ~ '18.11월 말

· 이용시간 : 월 ~ 금(오후 2시~5시)

□ 장 소 : 보건소 1층 보건교육실(쉼터)

□ 대 상 : 경증 치매환자

□ 운영내용 : 돌봄제공 및 인지자극프로그램 운영

·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등

□ 문 의 : 보건소 정신건강담당 ☎670-2565, 2984

2018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

교 육 명	교육기간	접수기간	비 고
한글2010	8. 27. ~ 10. 5.	8. 3. ~ 8. 26.	■주간반(28명/선착순)-(10:00~12:00) ■야간반(28명/선착순)-(18:30~20:30) · 교육장소:문화복지회관 정보화교육장(3층)
엑셀2010	10. 8. ~ 11. 9.	8. 27. ~ 10. 7.	
파워포인트2010	11. 12. ~ 12. 14.	10. 8. ~ 11. 11.	

※ 강좌별 신청자가 15인 미만일 경우 강좌개설 불가

과정명	1주차	2주차	3주차
한글2010	화면구성요소, 편집용지 설정 등	글자/문단모양/탭 특수문자/한자변환 등	문단번호, 글머리표, 스타일 지정
	4주차	5주차	6주차
	머리말/꼬리말/쪽번호/메모/상용구 등 활용	표 만들기/편집하기 차트 작성/편집하기 등	실무문서 만들기

과정명	1주차	2주차	3주차
엑셀2010	화면구성요소, 워크시트 및 셀 다루기	데이터 입력 및 편집, 자동 채우기, 카메라 기능	각종 서식(셀, 표 등), 자동 서식 지정하기
	4주차	5주차	6주차
	차트 작성하기, 페이지레이아웃, 출력	수식 기초, 함수 (날짜, 수학, 통계 등)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자동화 문서(매크로 등)

과정명	1주차	2주차	3주차
파워포인트 2010	화면구성요소, 워크시트 및 셀 다루기	데이터 입력 및 편집, 자동 채우기, 카메라 기능	각종 서식(셀, 표 등), 자동 서식 지정하기
	4주차	5주차	6주차
	차트 작성하기, 페이지레이아웃, 출력	수식 기초, 함수 (날짜, 수학, 통계 등)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자동화 문서(매크로 등)

□문의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부서 033-670-2462

예방수칙(6)

www.cdc.go.kr

야생진드기 주의하여 즐거운 야외활동 하세요!!

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 등)에 물릴 경우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등) **혈소판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1 긴팔, 긴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속으로 넣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합니다.

2 풀밭 위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린 후 보관합니다.

3 산책로·등산로 등 지정된 경로 이외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 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외출 후 옷은 반드시 세탁하고, 몸씻기를 합니다.

6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SFTS 예방의 최선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